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HARI AND HIS ELECTRIC FEET

가제 : 춤 대장 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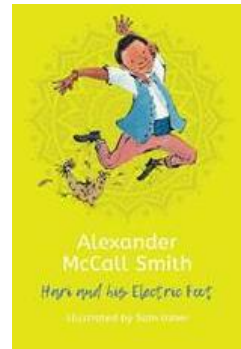
저자 : Alexander McCall Smith

출판사: Barrington Stoke Ltd

발행일: 2017년 10월 16일

분량 : 16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선데이 타임스」 ‘이 주의 아동 도서’, 러브리딩(Lovereading) ‘2018년 2월의 도서’로 선정
- * “춤으로 행복을 퍼뜨리는 어린 인도 소년에 관한 기분 좋은 현대 동화” - 「북셀러」
- * “저자 특유의 재미 있고 명료하면서도 친절한 메시지와 도덕적인 목표가 담긴 이야기이자 예술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 - 「선데이 타임스」

<슬럼독 밀리어네어>를 시작으로 인도 영화계는 ‘볼리우드’라 불릴 만큼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다. 무엇보다 가장 시선을 끄는 인도 영화의 특징은, 등장인물들이 뮤지컬처럼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점일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아동 작가가 선보이는 이 소설은 인도 영화의 그 독특한 춤에 푹 빠진 열두 살 유쾌한 소년 하리가 등장한다. 가난 때문에 부모님과도 떨어져 살면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형편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하리에게 영화 속 댄서들의 춤은 가장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열심히 아낀 용돈으로 극장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리가 누구보다 재능이 뛰어난 댄서라는 사실을 누가 예상했을까? 게다가 혼자 춤을 잘 추는데 그치지 않고, 그 춤을 보는 모든 사람들(그리고 동물들)까지 함께 춤을 추게 만드는 마성의 힘을 보유했다면? 늘 착하게 살아온 소년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 그리고 소년의 발끝에서 피어나는 신기한 능력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이야기는 책이면 무조건 심각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흐뭇한 미소가 번지게 한다.

아쌈이라는 동네에서 차를 재배하고 잎을 수확하는 일을 하는 부모님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좀처럼 형편이 나아지지 않자, 도시에 사는 이모에게 하리와 하리의 누나 아말라를 맡겼다.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서 함께 살자는 약속을 했지만 열두 살 하리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대신, 하리는 이모 일도 열심히 돕고 돈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가며 하루하루 부지런하게 살아간다. 누나가 미성으로 옷을 만들고 고치는 이모를 돕는 동안, 하리는 달콤하고 쫄쫄한 인도 전통 간식을 직접 만들어서 집 앞에

서 팔기도 하고, 점심 시간이 되면 이모네 근처 음식점에서 갓 만들어낸 따끈따끈한 도시락을 손님들에게 배달하는 것이 하리의 몫이었다. 둘 다 하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출근길에 하리의 간식을 사 가는 사람들은 맛이 끝내준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하지만 하리에게 빵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하리도, 이모도, 주변 이웃들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리의 진가가 밝혀진 것은 어느 날, 영화 촬영 팀이 동네에 찾아왔을 때였다.

주말마다 꼬박꼬박 영화관을 찾을 만큼 영화를 사랑하는 하리는 바로 앞에서 배우들이 춤추고 연기하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마침 짐꾼이 필요했던 현장 스텝 덕에 잠깐 일을 도우면서 촬영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된 하리는 화면으로만 보던 흥겨운 댄스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한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한 하리는 마당에 나가서 음악도 없이 몇 시간 전에 본 춤을 따라 해 보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태어나 춤이라곤 한 번도 춰본 적 없는 하리가 사진을 찍듯 스텝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한 것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모습을 보던 뒷마당 닭들과 이웃집 강아지가 갑자기 옆에 다가와서 춤추듯 신나게 몸을 움직이고 지나가던 하리의 동네 친구까지 춤추는 하리를 보며 깔깔 웃다가 난데없이 옆에서 같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음 날, 또 다시 촬영 현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하리는 구석에서 전날 연습했던 춤을 다시 추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잠시 쉬던 댄서들까지 그 모습을 보고 춤을 쳤다. 하리의 춤에서 보는 사람을 끌어 당기는, 마법 같은 힘이 나오는 게 분명했다.

도시락을 배달 받는 손님들 중에 큰 저택에서 홀로 사는 나이 지긋한 램 아저씨도 하리의 춤 실력을 알게 된다. 그 동안 매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던 하리에게, 램 아저씨는 사실 몸바이에서 큰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유명한 배우들에게 춤을 가르쳤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 준다. 경쟁 업체가 스튜디오에 불을 질러버린 바람에 모든 일을 접고 고향에 내려와 조용히 살고 있다고 털어놓은 아저씨에게 하리는 며칠 전에 촬영장에서 보고 혼자 외운 춤을 선보이고, 그 모습을 본 아저씨는 기겁한다. ‘전염성 있는 춤’, 하리의 춤이 세상 그 어떤 춤보다 특별하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본 것이다.

아는 것도 많고 세상 일에 대해서도 잘 아는 아저씨는 하리의 멋진 춤 솜씨를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린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화를 내는 사람들을 찾아가 춤을 보여주고 함께 춤을 추도록 이끌어서 기분 좋게 화해하고, 짜증내지 말고 서로 양보하도록 만들어보자는 램 아저씨의 제안으로 하리는 세계 곳곳을 아저씨와 함께 여행한다. 그리고 춤이 일으킨 효과는 모두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따뜻한 일러스트가 감동을 더하는 매력적인 이야기다.

<저자 소개>

알렉산더 맥콜 스미스(Alexander McCall Smith)는 총 2,0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네 개 대륙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The No. 1 Ladies' Detective Agency』 시리즈를 비롯해 50권이 넘는 책을 썼다. 2004년에는 영국 도서상(British Book Awards) 과 북셀러 협회(BookSELLERS Association)에서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다. 2007년에는 문학 분야에서의 공로로 대영제국 훈장(CBE)를 수여 받았다.

제목 : WHERE I LIVE

가제 : 내가 사는 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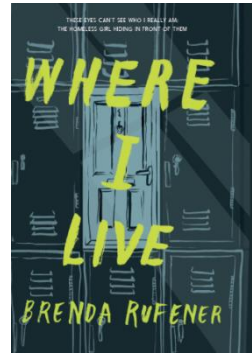
저자 : Brenda Rufener

출판사: HarperTeen

발행일: 2018년 2월 27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초판 25,000부 출간, 버스틀(Bustle) 선정 ‘2018년 가장 기대되는 현대소설 27’에 포함

* 반스 앤 노블 청소년 블로그 선정, ‘2018년 2월 가장 기대되는 YA 도서’

* “위기에 처한 한 소녀에 관한 감동적이고 현 시점에 꼭 필요한 이야기. 작가는 집을 잃은 사람들, 십대 데이트 폭력의 상황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Girl in Pieces』의 작가 캐슬린 글래스고

야간 자율학습이 밤 열 시가 되어야 끝나고 다음 날 아침 8시도 되기 전에 교실에 앉아 있어야 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절 차라리 교실에서 자는 게 낫겠다고 한 번쯤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갈 곳이 없어 학교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한탄도 사치로 여겨질지 모른다. 집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는 부모님이나 가족도 없다면? 그 기막힌 상황에 놓인 린든은 고아원에 억지로 붙들려 있는 대신, ‘차라리 학교가 낫겠다’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한다. 학교 자판기에서 뽑은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교내 야구팀 덕아웃에서 잠을 자고, 샤워실에서 빨래와 샤워를 해결하면서 학교를 집 삼아 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만 무조건 견뎌보려던 린든의 이 대담한 계획은 뜻밖의 사건들로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한다. 가족 하나 없는 린든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준 친구를 향한 애절한 감정, 그리고 과거의 어두운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어느 여학생의 위험한 비밀을 알게 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수업 시간에 잠들지 말 것, 가방에 짐을 너무 많이 넣고 다니지 말 것, 눈에 땀 만한 차림은 하지 말 것. 린든이 학교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세운 규칙은 단순하지만 빈틈없이 지키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학생들이 모두 교실에서 빠져나가고 학교가 텅 빈 공간이 되었을 때 몰래 다시 교문 안으로 들어오는 법 정도는 쉽게 알아냈지만 잠든 사이, 어디서 어떻게 발각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리아가 그나마 편히 눈감고 잠들 수 있는 곳은 야구장 구석, 덕아웃이다.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그렇게 ‘노숙’을 하고 나면, 다음 날 바람을 피해 교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쏟아진다. 엉뚱한 시간대에 꾸벅꾸벅 조는 건 선생님들의 수상한 시선을 잡아 끄는 자석이나 마찬가지고, 한 번 의심 받기 시작하면 끝장이다. 린든이 수업 시간마다 자꾸만 아래로 내려오는 눈꺼풀을 붙들기 위해 손톱으로 몸 곳곳을 꼬집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두 번째 규칙도 비슷한 이유로 탄생했다. 평범한 가정에서는 욕실 수납장이나 주방 선반에나 놓여 있을 법한 세면도구며 봉지에 덜

어 놓은 세제 같은 물건이 갑자기 책가방에서 떨어진다면, 학교 아이들이나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할까? 가방에 짐을 꾸역꾸역 넣고 다니다가 실수로 내용물이 쏟아지거나 하면 그런 아찔한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보이지 않는 사물함, 아무도 가지 않는 구석진 장소에 짐을 나눠서 숨겨두고 책가방에 의심 받을 만한 물건은 최대한 넣지 않는 것, 이 규칙 역시 린튼이 학교에서 무사히 하루하루를 넘기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숨바꼭질로 늘 고단한 린튼의 삶은 늘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친구, 햄과 승 덕분에 겨우 이어졌다. 린튼이 처음 이 학교로 전학을 왔을 때부터 친구지만 오빠처럼 따뜻하게 맞이해준 두 사람에게도 사실 집이 없어서 학교에 산다는 말은 털어놓지 못했지만, 하루하루 전쟁인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두 친구 덕분이었다. 그러나 동급생인 베아의 얼굴에 린튼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절망과 고통의 그림자가 내려 앉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린튼은 큰 혼란에 빠진다. 벗어날 수 없는 폭력의 늪, 그 속에 갇힌 베아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견디다가 어떤 사태로 이어질 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린튼은 잘 알고 있었다. 엄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오래 전, 린튼이 아직 어린 소녀일 때 엄마는 어떤 남자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남은 기억은 집에 누가 엄마를 찾아올 때면 린튼은 늘 눈에 띄지 않도록 늘 옷장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주 엄마를 만나러 오던 남자가 엄마를 죽였다는 사실뿐이었다. 사람들은 엄마를 몸 파는 여자라고 불렀지만 린튼에게는 그저 책을 많이 읽고,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는 따뜻한 엄마였다. “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해칠 수도 없어.” 늘 이렇게 어린 린튼을 다독이며 옷장에 숨어 있으라고 한 것도 엄마였다. 엄마가 없어지고, 할머니 집으로 보내진 린튼은 치매가 점점 심해져 손녀는커녕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던 할머니까지 세상을 떠나자 고아원을 피해 노숙 생활을 택한 것이다. 멍든 베아의 얼굴과 심하게 부풀고 터진 입술, 무엇보다 두 눈에 가득한 절망은 린튼에게 아주 오래 전에 잊었다고 생각한 엄마를 떠올리게 했다. 베아가 엄마처럼 괴물 같은 사람의 손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든 린튼은 학교 블로그의 편집장이라는 지위와 의리로 뚝뚝 뭉친 햄과 승, 두 친구의 도움으로 베아의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베아를 지옥 같은 폭력에서 구출하려면 린튼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세상에 드러날 수도 있고, 미래만 생각하며 묻어 두려던 과거의 처참한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 그 사이 린튼과 승 사이에서 점점 미묘한 기류가 더해가고, 린튼에게 이상하게 큰 관심을 기울이는 선생님까지 나타나면서 학교에서 사는 린튼의 상황이 모두 들끓는 위기에 처한다.

지난 해 뉴욕타임스에서 뉴욕 시 공립 고등학교 재학생 중 집이 없는 학생이 무려 10 퍼센트에 달한다는 기사가 실릴 만큼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겪고 있을지 모를 청소년 노숙 문제를 데이트 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와 함께 결합시켜 현 시대 십대들이 겪는 위기를 조명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브렌다 루페너(Brenda Rufener)는 휘트먼 대학교에서 영어와 생물학을 전공했다. 집 없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해 왔다.